

농촌지역 재가노인의 성공적 노화, 우울과 가족기능간의 관계

반 금 옥* · 한 혜 자**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기대수명의 연장과 낮은 출산율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어 2000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7% 이상으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2012년 현재 11.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0년 24.3%, 2050년 37.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12). 이러한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지금까지 노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일반적으로 빈곤과 질병, 고독, 의존 등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여러모로 기능이 쇠퇴하고 혼자 생활하기 어려우며 무기력하고 부담이 되는 존재로 부각되어서(김동배, 2008), 개인은 물론, 가족이나 사회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노인들이 비교적 좋은 건강 상태에서 활기차게 오래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어떻게 하면 노년의 삶을 보다 활동적이며, 성공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가 하는 노년기 삶의 질과 성공적 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점차 커져가고 있다(윤현숙과 유희정, 2006).

성공적 노화의 개념이 결과라 아닌 노년기에 발생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제 문제에 대해 적응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되어(김미혜와 신경림, 2005), 노인 자신이

가진 보유자원이나 가족관계, 문화적 배경, 노화에 대한 태도나 준비 등에 있어서 개인의 선택과 행동에 좌우되어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선행 연구를 통해 밝혀진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 노년기의 사회적 관계나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특히 적절한 가족관계를 통한 바람직한 가족기능은 노인에게 있어 성공적 노화를 좌우하는 기본 요건이며(박지원과 반금옥, 2010) 중요한 자원이자 지지의 근원이다. 노인은 가족을 주요한 지지체계로 인식하고 있으며 가족의 수보다는 가족 간의 애정, 의사소통, 가치관의 일치 등의 긍정적인 가족기능이 생활 만족이나 심리적 행복감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숙경, 2004). 이러한 가족기능의 변화는 가족 내 노인의 위치의 변화를 초래하여 우울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노년기 전반에 걸쳐 증가하는 우울은 노화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신체적 질병, 배우자의 사망, 사회와 가족으로부터의 고립, 일상생활에 대한 자기 통제 불능, 그리고 지나온 세월에 대한 회한 등으로 우울 경향이 증가하게 된다(신경림과 김정선, 2003). 우울증이 없는 노인들은 우울이 있는 노인들에 비해 성공적 노화의 가능성이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울은 성공적 노화에 매우 중요한 요인인 것을 알 수 있다(조진희, 2008).

한편 노인이 지각하는 성공적인 노화란 그들이 속해 있는 문화적 맥락과 살아온 삶의 계층적인 맥락을 모두

* 충청대학교 보건계열 조교수(교신저자 E-mail: kmoban@ok.ac.kr)

** 신성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투고일: 2012년 4월 12일 수정일: 2012년 4월 20일 게재확정일: 2012년 4월 27일

내포하는 개념이므로(백지은과 최혜경, 2005), 노인들이 속한 지역에 따라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이 성공적 노화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본다. 성공적인 노화의 차이가 서울시 내에서도 지역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이러한 개념이 문화적인 배경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농촌 노인들의 삶의 질이 최하위에 머무른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박경희, 2006) 성공적 노화에 대한 우리나라 지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농촌 지역은 해가 거듭되어 갈수록 고령화가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서울과 6대 광역시 평균은 9.9%인데 비해, 나머지 9개도의 평균은 15.9%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통계청, 2012). 이러한 농촌지역의 노인인구의 증가는 농촌 지역사회의 생산성 감소, 노인소득의 감소, 급속한 건강의 악화, 열악한 의료적 환경, 가족환경의 변화로 인한 노인 단독 가구의 비율증가에 따른 고독과 소외감 등의 심화가 가중되고 있다. 이는 농촌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더 나아가 농촌사회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를 낳을 뿐 아니라 농촌노인을 노인이라는 불리한 위치에 더해 농촌의 경제 구조적, 의료적 악조건 하에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감수하여야 되는 소외계층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도시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농촌지역 노인들에 대한 복지자원이나 정책이 요구되고 있지만 실제 현실은 이와 달리 대부분의 노인관련 연구나 정책 제안들이 서울 및 대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신아름, 2007).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농촌 지역이 노후생활에 주요한 가치를 줄 수 있고, 노년기 삶의 터전으로 적절하다는 연구(농촌진흥청, 2006)에서처럼 농촌의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노인들의 생활과 결부시킴으로써 성공적인 노화와 관련된 우울, 가족기능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농촌노인들의 성공적 노화 정도와 우울, 가족기능간의 관계를 확인하여 성공적 노화를 증진하고 농촌노인들이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게 되었다.

2. 연구 목적

연구는 노인의 성공적 노화, 우울, 가족기능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농촌 노인의 성공적 노화, 우울, 가족기능의 정도를

파악한다.

- 2) 농촌 노인의 성공적 노화, 우울, 가족기능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3) 농촌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3. 연구 제한점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편의 추출하여 일개 군의 노인으로 한정 연구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문화적, 사회심리적, 경제적 차이가 있는 전체 노인에게 적용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65세 이상 농촌 노인을 대상으로 성공적 노화, 우울, 가족기능 정도를 파악하고 그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2. 연구 대상

연구대상은 D군에 거주하는 노인 300명을 편의표출 방식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65세 이상의 남·녀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G-Power 3.0 프로그램을 이용한 예상 대상자 수는 power 0.90, 유의수준 $\alpha = .05$, medium effect size 0.3으로 설정하여 대상자 수는 237명으로 결정되었고, 본 연구의 대상자수는 필요한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대상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만 65세 이상인 자
- 둘째, 인지기능이 정상이고 의식이 명료한 자
- 셋째,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면담에 응답이 가능한 자
- 넷째,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동의한 자로 하였다.

3. 연구 도구

1) 성공적 노화

성공적 노화는 김미혜와 신경림(2005)이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후 성취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5점 척도 30문

항으로 개발한 '성공적 노후 척도'를 노인의 응답이 용이하도록 3점 척도로 전환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화를 긍정적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척도는 '자기효능감을 느끼는 삶', '자기통제를 잘하는 삶', '자녀성공을 통해 만족하는 삶', '부부간의 동반자적 삶'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발 당시의 도구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 .94$ 였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 .92$ 였다.

2) 가족기능

가족기능은 가족 구성원이 하나의 개방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활동이다(Robert & Feedham, 1982). 본 연구에서는 Smilkstein (1978)이 개발하고 강성규, 윤방부, 이해리, 이동배 및 심운택(1984)이 번안한 가족기능도 지수(Family APGAR score)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기능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는 가족 상호간의 적응도, 협력도, 성장도, 애정도, 친밀도를 나타내는 5개의 항목에 대한 질문에 0에서 2점까지의 3점 척도로 평가하고 0점에서 10점까지의 점수분포가 가능하다. 0-3점은 매우 문제 있는 가족기능, 4-6점은 중등도의 가족기능으로 7점 이상은 좋은 가족기능 군으로 구분한다(윤방부와 광기우, 1985). Smilkstein (197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가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0이었다.

3) 우울

우울은 슬픈 느낌의 정동으로 비관, 자기비하, 무력감, 무겁고 처진 느낌, 절망감, 고립감, 의욕감퇴, 흥미 상실, 죄책감을 느끼고, 조용하고 행동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이며(민성길, 2005), 본 연구에서는 Sheikh와 Yesavage (1986)에 의해 개발된 GDS (Geriatric Depression Scale)를 배재남(1996)이 표준화한 한국어판 SGDS (Short form geriatric depression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예'는 1점, '아니오'는 0점을 주고, 총 15문항이며 점수범위는 0점~15점까지이고, 긍정적인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우울 여부는 본 도구에서 8점 이상인 경우를 우울증이 있는 것으로 구분하였다(조맹제 등, 1999). 한국판 개발 당시 우울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가 .89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1이었다.

4.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0년 11월 15일부터 2010년 12월 20일까지 시행되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대상자에게 언제든지 연구 참여의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렸으며, 서면 동의서에도 명시하여 참여 동의를 구한 후 일대일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직접 설문지 기입이 가능한 대상자는 본인이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직접 기입이 어려운 노인은 연구자들과 훈련받은 연구보조자 2인이 설문내용을 읽어드린 후 연구자가 기입하기도 하였다. 자료수집에 소요된 시간은 20-30분이었다.

총 30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었으나 그중 답변이 불충분한 자료 28부를 제외한 272부(회수율 90.1%)를 최종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7.0 Window 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서술통계로,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α 값을 이용하였다.
- 2) 대상자의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였다.
- 3) 대상자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72.88±6.32세였으며 70-79세가 123명(45.2%)로 가장 많았고, 여성이 154명(56.6%)로 남성보다 많았다. 결혼 상태는 결혼 중이 가장 많았고(174명, 64.2%), 그 다음으로는 사별이 78명(28.8%)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가 119명(43.9%),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대상자가 62명(15.5%), 독거노인이 56명(20.6%)의 순이었다. 진단 받은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가 210명(77.2%)이었으

며 그 중 뇌졸중이 80명(38.1%)으로 가장 많았다. 가족의 월 평균 소득은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이 61명(22.8%),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55명(20.6%)이었으며 월 개인 용돈은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이 94명(34.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교육정도는 초등학교 졸업이 114명(42.1%)으로 가장 많았으며 운동은 하지 않는 경우가 128명(47.1%), 가끔 하는 경우가 105명(38.8%), 매일하는 경우가 38명(14.0%)으로 조사되었다. 고민 상담을 할 가까운 말벗이 1-2명 있는 경우가 144명(52.9%)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116명(43.0%)으로 가장 많았다(표 1).

2. 대상자의 성공적 노화, 우울, 가족기능

대상자가 인지하는 성공적 노화는 최대 3점에 평균 2.28±0.46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별 점수는 '자녀 성공을 통해 만족하는 삶'이 2.56±0.57점, '부부간의 동반자적 삶'이 2.40±0.61점, '자기통제를 잘하는 삶'이 2.36±0.53점, '자기 효능감을 느끼는 삶'이 2.16±0.54점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우울은 최대 15점에 8점 이상을 우울증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본 연구 대상자는 평균 6.13±3.75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기능을 분석한 결과 최대 10점에 6.98±2.83점으로 중등도의 가족기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족기능의 영역별 점수를 살펴보면 협력도 1.48±0.65점, 적응도 1.46±0.67점, 성장도 1.45±0.62점, 애정도 1.31±0.69점, 친밀도 1.28±0.73점의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2).

3. 성공적 노화, 우울, 가족기능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성공적 노화의 정도와 우울($r = -.659, p < .001$), 가족기능($r = .621, p < .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적 노화의 구성 요인과 제 변수들과의 관계에서는 우울은 '자기 효능감을 느끼는 삶'($r = -.669, p < .001$), '자녀 성공을 통해 만족감을 느끼는 삶'($r = -.243, p < .001$), '부부간의 동반자적 삶'($r = -.437, p < .001$), '자기통제를 잘하는 삶'($r = -.568, p < .001$)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기능은 '자기효능감을 느끼는 삶'($r = .498, p < .001$), '부부간의 동반자적 삶'($r =$

표 1. 일반적 특성 (N=272)

범주	항목	n (%)
연령	평균: 72.88±6.32	
	65-69	105(38.6)
	70-79	123(45.2)
	80 or more	44(16.2)
성별	남	118(43.4)
	녀	154(56.6)
결혼상태	미혼	5(1.8)
	기혼	174(64.2)
	이혼	11(4.1)
	사별	78(28.8)
	기타	3(1.1)
동거상태	독거	56(20.6)
	배우자	119(43.9)
	가족	62(15.5)
	기타	11(2.7)
종교	유	147(54.0)
	무	125(46.0)
진단받은 만성질환	뇌혈관질환	11(4.0)
	근골격계질환	80(29.4)
	심혈관계질환	77(28.3)
	소화기계질환	27(9.9)
	내분비계질환	15(5.5)
	없음	62(22.8)
교육수준	무학	50(18.5)
	초졸	114(42.1)
	중졸	65(23.9)
	고졸	29(10.7)
	초대졸 이상	13(4.8)
월평균소득 (단위: 10,000원)	≥ 250	35(13.1)
	≥ 200 ~ < 250	61(22.8)
	≥ 150 ~ < 200	32(12.0)
	≥ 100 ~ < 150	45(16.9)
	≥ 50 ~ < 100	55(20.6)
	< 50	39(14.6)
월평균용돈 (단위: 10,000원/월)	≥ 40	34(12.6)
	≥ 30 ~ < 40	26(9.6)
	≥ 20 ~ < 30	43(15.9)
	≥ 10 ~ < 20	94(34.6)
	≥ 5 ~ < 10	60(22.2)
	< 5	13(4.8)
운동여부	안함	128(47.2)
	가끔	105(38.8)
	매일	38(14.0)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양호	9(3.3)
	양호	54(20.0)
	보통	116(43.0)
	불량	71(26.3)
	매우 불량	20(7.4)

표 2. 대상자의 성공적 노화, 우울, 가족기능 (N=272)

범주	항목	n(%)	평균±표준편차
성공적 노화	자기 효능감을 느끼는 삶		2.28±0.46
	자녀성공을 통해 만족하는 삶		2.16±0.54
	부부간의 동반자적 삶		2.56±0.57
	자기통제를 잘하는 삶		2.40±0.61
			2.36±0.53
			6.13±3.75
우울	비우울	184(67.6)	
	우울	88(32.4)	
가족기능	적응도		6.98±2.83
	협력도		1.46±0.67
	성장도		1.48±0.65
	애정도		1.45±0.62
	친밀도		1.31±0.69
			1.28±0.73

표 3. 성공적노화, 우울, 가족기능간의 관계

변수	1)	2)	3)	3-1)	3-2)	3-3)	3-4)
	r(p)						
1) 우울	1						
2) 가족기능	-.358 (.000)	1					
3) 성공적 노화	-.659 (.000)	.621 (.000)	1				
3-1) 자기효능감을 느끼는 삶	-.669 (.000)	.498 (.000)	.945 (.000)	1			
3-2) 자녀 성공을 통해 만족감을 느끼는 삶	-.243 (.000)	.074 (.222)	.359 (.000)	.295 (.000)	1		
3-3) 부부간의 동반자적 삶	-.437 (.000)	.488 (.000)	.634 (.000)	.526 (.000)	.344 (.000)	1	
3-4) 자기통제를 잘하는 삶	-.568 (.000)	.482 (.000)	.865 (.000)	.791 (.000)	.204 (.001)	.528 (.000)	1

.488, $p<.001$), '자기통제를 잘하는 삶'(r = .482,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

4.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 대상자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기 위해 우울, 가족기능, 연령, 성별, 결혼상

태, 교육수준, 월평균 소득을 독립변수로 하고, 불연속변수를 dummy 변수로 전환하여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연구 결과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우울이 전체 변량의 43.2%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가족기능, 연령의 순이었으며, 이를 다 포함시켰을 때 설명력이 61.7%였다.

IV. 논 의

본 연구는 농촌노인들의 성공적 노화, 우울, 가족기능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되었으며,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가 인지하는 성공적 노화점수는 최대 3점에 평균 2.28±0.46점으로 백분율로 환산했을 때 76점으로, 박경희(2006)의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

표 4. 성공적노화의 영향요인

변수	R	R2	β	t	p
우울	.659	.432	-.453	-10.653	$p<.001$
가족기능	.777	.601	.443	11.008	$p<.001$
연령	.788	.617	-.139	-3.490	.001

의 성공적 노화점수 3.82점(백분율 환산 점수 76점)과 이지선(2008)의 재가노인의 성공적 노화점수 3.60점(백분율 환산점수 72점)과 유사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본 연구의 성공적 노화점수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농촌노인이 자신의 노후의 삶이 보다 성공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하위영역별 점수는 '자녀성공을 통해 만족하는 삶'이 2.56 ± 0.57 점, '부부간의 동반자적 삶'이 2.40 ± 0.61 점, '자기통제를 잘하는 삶'이 2.36 ± 0.53 점, '자기 효능감을 느끼는 삶'이 2.16 ± 0.54 점의 순으로 나타난 본 연구에서는 자녀성공을 통해 만족하는 삶의 점수가 가장 높은 연구들(김미혜와 신경림, 2005; 박경희, 2006; 이지선, 2008; 한수정, 한진숙 및 문영숙, 2009)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자녀성공을 통해 만족하는 것을 한국연구에서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반면 성공적 노화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배우자와의 장기간에 걸친 행복한 가정생활 즉 만족스러운 관계가 가장 중요한 변인이라는 서구의 연구결과(Crosnoe & Elder, 2002)와는 대조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가족이 서구의 부부중심의 핵가족의 특성보다는 여전히 자녀중심의 한국의 유교 문화적인 전통 속에서 자녀가 잘 되고, 자녀의 성공이 곧 자신이 성공이라는 인식과 자녀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성공적 노화의 준거점으로 보고 있다고 하였는데(강인, 2003), 이러한 특성은 농촌노인에서 특히 두드러짐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우울점수는 최대 15점에서 8점 이상을 우울증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본 연구 대상자는 평균 6.13 ± 3.75 점으로 나타나 우울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의 직업인들과는 달리 대부분 자영업의 형태를 취하는 농업을 경영하는 농촌노인이 비자발적인 퇴직과 같은 역할 상실을 경험하지 않고, 그들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본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농촌노인은 도시노인들보다 노후생활이 상대적으로 풍요롭다는 농촌의 긍정적 측면이 부각되어 개인적으로 자연친화적 삶으로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정서적 평온감과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우울 측정도구인 SGDS (Short form geriatric depression scale)를 이용한 여러 연구들에서, 대도시 노인을 대상으로 한 한수정 등(2009)은 평균 3.80점,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류장학, 추수경 및 반금옥(2009)은 평균 6.04점, 시설노인을 대상으로

한 서순림과 홍해숙(2001)은 평균 7.25점 등으로 다양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건강에 문제가 있는 방문 간호 대상자이거나 남성보다 더 우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결과로 본 연구결과와 상이한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기능을 분석한 결과 6.98 ± 2.83 점으로, 경로당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류장학 등(2009)의 가족기능 정도 2.82점, 경로당 남녀 노인을 대상으로 한 김옥수와 백성희(2003)의 가족기능 정도 4.95점, 방문 건강관리 사업 대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최은정(2008)의 가족기능 점수 5.1점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가족기능 점수 7점 이상은 좋은 가족기능 군으로 구분한다는 기준(윤방부와 광기우, 1985)으로 볼 때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중등도 이상의 좋은 가족기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가족과 동거하는 군이 독거하는 군보다 가족기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최은정, 2008; 김옥수와 백성희, 2003)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본 연구 대상자의 64.2% 이상이 결혼 중이었고, 배우자나 가족과 함께 동거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임을 고려해볼 때 나타난 결과라고 보여진다. 또한 아직까지는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이 노인을 공경하고 유교적 개념이 남아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대상자의 성공적 노화와 우울은 음의 상관관계이며, 성공적 노화의 하부요인별 제 변수들과의 관계에서도 우울은 모두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나 우울정도가 낮을수록 성공적 노화 정도가 높게 나타난 연구(이지선, 2008; 한수정 등, 2009)들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노인 자신들의 정서적 만족과 행복은 노인들의 삶을 결정하며, 이런 의미에서 성공적 노화를 위한 심리적 안정감은 고려되어야 하고, 심리적 안녕은 성공적 노화의 결과 지표라고 한 것처럼(윤현숙과 유희정, 2006) 우울 정도가 낮으면 성공적 노화정도가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성공적인 노화와 가족기능($r = .621, p < .001$)은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는데, 이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족기능이 성공적 노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조사한 박수정(2007)의 결과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박경희, 2006)에서 가족기능이 성공적 노화의 요인 중 가장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노인에게 있어 가족과 가족의 지지는 노후의 행복감과 성공적 노후를 좌우하는 기본요건의 하나이며 가장 중요한 자원이자 지지의 근원이 되어 바람직한 성공적 노후를 보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므로(박경희, 2006) 노인들의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가족지지를 증진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농촌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울, 가족기능, 연령으로 나타났으며, 예측하는 순서대로 보면 우울이 가장 큰 관련 변수로서 전체 변량의 43.2%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가족기능, 연령의 순이었으며, 이를 다 포함시켰을 때 설명력이 61.7%였다. 이는 한수정 등(2009)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 미치는 변인 중 우울이 가장 큰 관련변수로서 전체 변량의 40.6%의 설명력을 갖는 것과 우울이 성공적 노화의 주요지표라 밝힌 연구(이지선, 2008; Seeman, Bruse, & McAvay, 1996)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가족기능도 바람직한 성공적 노화의 요인으로 조사된 연구(류장학 등, 2009; 박수정, 2007)처럼 농촌노인은 가족을 주요한 지지체계로 인식하고 성공적 노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인다. 연령 또한 성공적 노화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나타난 연구(백지은과 최혜경, 2005)처럼 연령이 낮을수록 성공적 노화수준이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성공적 노화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엔 연령을 고려하여 중년기부터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근거로 하여 사회문화적, 지역적 차이를 보이고 있는 농촌 노인을 대상으로 우울, 가족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공적 노화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개인적, 사회심리적, 경제적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농촌노인들의 성공적 노화, 우울, 가족기능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농촌노인의 간호서비스의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대상자의 성공적 노화 정도는 우울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가족기능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기능은 우울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촌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우울, 가족기능, 연령이 있었으며, 우울이 43.2%의 설명력을 보였고, 전체 변수를 포함한 경우 61.7%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를 위해 우울 등의 관리를 통한 심리적 안정감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노인에게 있어

가족기능은 노후의 행복감과 성공적 노화를 좌우하는 기본요건의 하나이므로 노인들의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우울을 중재하고, 가족지지를 증진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연령 또한 성공적 노화에 중요한 요인으로서 연령이 낮을수록 성공적 노화의 수준이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성공적 노화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엔 연령을 고려하여 중년기부터 제공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획일화한 성향으로 판단한 정책보다는 노인의 우울, 가족기능 및 성공적 노화가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 따른 차이를 보이므로 이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표본에는 80세 이상의 후기 노령인구가 적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추후 후기 고령노인의 증가에 대비하여 후기 고령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수행하고 연령별 차이에 따른 다양성을 밝힐 것을 제언한다.

참 고 문 헌

- 강성규, 윤방부, 이혜리, 이동배, 심운택 (1984). 가족기능도지수에 관한 기초조사 연구. *가정의학회지*, 5(12), 6-13.
- 강인 (2003). 성공적 노화의 지각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0, 95-116.
- 김동배 (2008).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화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지*, 60(1), 211-231.
- 김미혜, 신경림 (2005).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5(2), 35-52.
- 김숙경 (2004). 농촌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연구*, 23, 179-202.
- 김옥수, 백성희 (2003). 노인의 외로움과 사회적 지지, 가족기능간의 관계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33(3), 425-432.
- 농촌진흥청 (2006). *연구와 지도 "농촌 건강장수마을의 육성과 생활 만족도"*. 수원: 농촌진흥청
- 류장학, 추수경, 반금옥(2009). 경로당 여성노인의 심리 사회적 특성과 가족기능 및 일상생활수행능력간의 관계.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3(1), 40-49.
- 민성길 (2005). *최신정신의학(제 5판)*. 서울 : 일조각.
- 박경희 (2006).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성공적인 노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박수정 (2007). 저소득 재가노인의 성공적 노후 구성요소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박지원, 반금옥 (2010). Circumplex Model에 근거한 취약가구 노인의 가족기능과 성공적 노화. *성인간호학회지*, 22(3), 239-249.
- 배재남 (1996). DSM-III-R 주요우울증에 대한 *geriatric depression scale(GDS)*의 진단 정확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 백지은, 최혜경 (2005). 한국노인들이 기대하는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 유형 및 예측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1-16.
- 서순림, 홍혜숙 (2001). 노인의 스트레스, 면역세포 변화, 신체적 건강상태 및 우울. *대한기초간호자연과학회지*, 3(1), 73-90.
- 신경림, 김정선 (2003). 노인여성의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 연구. *노인간호학회지*, 5(1), 29-37.
- 신아름 (2007). 초고령 농촌지역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대학원, 부산.
- 윤방부, 박기우 (1985). 가족기능 측정방법으로서의 Family-APGAR지수에 관한 소고. *가정의학회지*, 6(12), 13-17.
- 윤현숙, 유희정 (2006). 가족관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8, 5-31.
- 이지선 (2008). 재가노인의 성공적인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대전.
- 조맹제, 배재남, 서국희, 함봉진, 김장규, 이동우 등 (1999). DSM-III-R 주요우울증에 대한 한국어판 Geriatric Depression Scale(GDS)의 진단적 타당성 연구. *신경정신의학*, 38(1), 48-62.
- 조진희 (2008). 중년여성의 성공적인 노화인식과 우울.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임상간호정보대학원, 서울.
- 최은정 (2008).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 노인의 가족기능과 건강상태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대학원, 부산.
- 통계청 (2012). *고령자 통계*.
- 한수정, 한진숙, 문영숙 (2009). 노인의 성공적 노화와 영향요인. *성인간호학회지*, 21(4), 423-434.
- Crosnoe, R. & Elder, G. H. (2002). Successful adaptation in the later years: A life course approach to aging.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5(4), 309-328.
- Roberts, C. S., & Feetham, S. L. (1982). Assessing family functioning across three areas of relationships. *Nursing Research*, 31(4), 231-235.
- Seeman, T. E., Bruse, M. L., & McAvay, G. J. (1996). Social Network Characteristics and Onset of ADL Disability: MacArthur Studies of Successful Aging.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51B(4), 191-200.
- Sheikh, J. I., & Yesavage, J. A. (1986). *Geriatric depression scale(GDS): Recent evidence and development of a shorter version*. In T. L. Brink, *Clinical Gerontology: A guide to assessment and intervention*. New York: The Harwoth Press.
- Smilkstein, G. (1978). The family APGAR: A proposal for a family function text and its use by physician. *Journal of Family Practice*, 6, 1231-1240.

- Abstract -

Relationship of Successful Aging, Depression, and Family Function Among Rural Community Elders Living at Home

Ban, Keum-Ok* · Han, Hye-Ja**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examine the relationship of successful aging, depression, and family function in rural elders. **Method:** A descriptive correlation study design was used and data of the study were collected from 272 people who were overn 65 years of age and lived in a rural community. **Result:** The mean score for successful aging was 2.28±0.46 points of a

* Assistant Professor, Division of Health Science, Chung Cheong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hinsung University

maximum 3 points. The elders showed a moderate degree of family function (6.98±2.83 points out of 10 points). The mean score for depression was 6.13±3.75 points out of 15 points.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successful aging and both depression ($r=-.659$, $p<.001$) and family function ($r=.621$, $p<.001$).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was done to verify factors influencing successful aging. Depression was the dominant factor accounting for 43.2% of the total variance, followed by family function and age in that

order. Inclusion of all of the study values resulted in an explanation power of 61.7%.

Conclusion: The study results suggest that the provision of individual socio-psychological, and economic measures is important to promote successful aging in rural areas which are different in terms of socio-cultural as well as regional factors compared to urban areas.

Key words : Aging, Depression,
Rural community